

KIA 루키 안치홍 'SK 사냥꾼'



올 시즌 홈런 8개 중 4개 쏘아 올려 문학·잠실 등서 펄펄... 큰 무대 체질

‘큰 무대 체질 안치홍’ KIA 타이거즈의 ‘루키’ 안치홍이 24일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8번째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팬들 사이에 ‘비룡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올 시즌 안치홍이 기록한 8번의 홈런 중 4개는 SK와의 경기에서 터졌다.

마운드 높이 하면 8개 구단에서 빠지지 않는 SK이지만 신인 안치홍에게는 4개의 홈런을 선사했다. 안치홍은 상대팀과 투수를 특별히 의식하지는 않는 스타일이지만 “프로데뷔 첫 안타를 기록했던 팀이라서 더 자신있게 경기를 하는 것 같다”고 SK전을 평가했다.

잠실에서 열린 두산과의 개막 2연전에서 대수비로 들어가면서 타석에는 서지 못했던 안치홍은 4월7일 SK와의 홈경기에서 이용규가 부상으로 중간에 빠지면서 교체해서 들어가 첫 타석에서 프로데뷔 첫 안타를 터뜨렸다.

‘비룡 사냥꾼’ 안치홍은 ‘큰 무대에 강한 사나이’로도 통한다. 8개의 홈런 중 3개가 문학에서 터졌고, 사직과 잠실구장에서는 각각 2개와 1개의 홈런을 기록하고 있다.

시즌 타율이 0.243인 안치홍은 ‘비룡 사냥꾼’답게 문학전 타율이 0.412에 이른다. 사직은 0.368, 잠실은 0.313로 한국에서 가장 큰 세 구장에서 펄펄 날아다니고 있다.

‘부산 갈매기’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웬만한 고참급 선수들도 기가 질린다는 사직구장도 안치홍에게는 즐거운 야구 무대일 뿐이다.

안치홍은 “원래 긴장도 잘하지 않고 경기장 분위기를 신경 쓰지 않는 편이다”며 “오히려 같이 응원가를 따라 부르면서 편하게 경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안치홍의 남다른 배포는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다.

서울고 2학년 때 재학중이던 2007년 대통령배전국 고교야구대회 결승에서 당시 광주일고의 에이스 정찬현(LG)에게 두 개의 홈런을 뺏아냈던 것은 유명한 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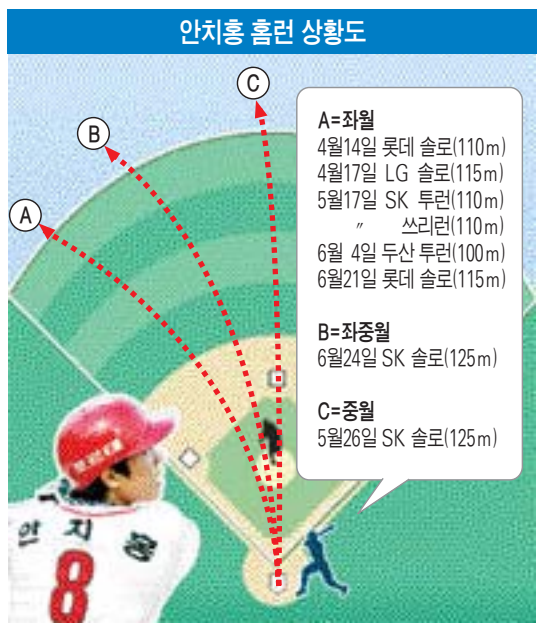
안치홍은 “고등학교 때도 준결승, 결승 등 큰 경기에서는 꼭 홈런을 기록했었다”며 “큰 경기에서 뛰는 게 즐겁다”고 밝혔다.

신인답지 않은 배포와 파워로 8개의 홈런을 기록한 안치홍이지만 타구 방향은 모두 좌측에 쏠려있다. 8개 다 끌어당겨 만든 홈런으로 아직 밀어쳐서 홈런을 만들지는 못했다.

한 때 의도적으로 밀어쳐 홈런을 만들려고도 했지만, 오히려 타격 페이스가 떨어지자 시즌 중에는 타격 방법을 변화를 주지 않기로 했다.

최근 신인왕 경쟁자인 두산 홍삼삼, 정수빈의 무서운 기세에 KIA 팬들이 초긴장상태지만 정작 본인만 태연하다. 두 선수의 기록을 살펴보면 신인왕을 생각 해볼 만도 하지만 이에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경기만 생각하며 고민한다.

안치홍은 7월 또 따른 큰 무대 ‘올스타전’에 오른다. 안치홍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서군 올스타 투표 1위를 달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무등경기장 부상 악몽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와의 시즌 12차전이 열린 2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의 양쪽 덕아웃에는 경기전부터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양팀은 전날 12회까지 가는 연장 혈투 끝에 3-3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게다가 경기 도중 부상으로 실려나갔던 SK의 박경완이 아킬레스건 파열로 수술까지 받았다. KIA에도 부상병이 속출했다.

좌익수로 출전해 슬라이딩 캐치를 했던 장성호가 11일 히어로즈전 때 다쳤던 부위가 악화되면서 갈비뼈 미세 골절로 엔트리에서 빠졌다.

무릎이 좋지 않은 나지완과 가슴 부위에 공을 맞았던 이종범 그리고 베이스 러닝 도중 무릎을 삐끗한 김상현까지 모두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올 시즌 유난히 광주 구장에서 많은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프런트들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무등경기장에서 경기 도중 실려나갔던 채종범·이용규에 이어 김

정민(LG)·이종욱(두산)·박경완(SK)까지 모두 수술대에 올랐다.

김용희 SBS 스포츠 해설위원은 “부상이 발생하는 데는 기술력·정신력·체력 부족의 3가지 이유가 있는데 김상현의 경우는 기술력 문제로 스텝을 잘 못 밟은 것 같고, 박경완 선수는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에제자 박경완의 부상을 지켜본 조병현 감독도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이 올 수 있다”며 “당초 아킬레스 건이 좋지 않은 대다 월드 베이스볼(WBC)에 출전하는 등 올 시즌 강행군을 해왔던 만큼 큰 부상을 당한 것 같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무등경기장의 고질적인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용규의 경우 잘못된 외야 펜스 탓에 부상이 커진 경우다. 허구연 MBC ESPN 해설위원은 “무등경기장

박경완 등 부상자 잇단 속출 미끄러운 인조잔디 숨은 주범

의 경우 외야펜스가 광고물로 뒤덮여 있어 펜스를 딛고 수비를 하는 선수들이 미끄러질 수 있다”며 “이용규도 스파이크가 광고물에 걸리면서 발목이 돌아간 경우다”고 설명했다.

인조잔디도 부상의 숨은 주범이다.

부족 날씨가 더워지면서 한 낮 인조잔디 위로 올라온 열기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저녁이 되면 온도차 때문에 부목 경기장이 미끄러워지는 등 선수들은 이 중과다.

김상훈은 “기온이 내려가는 저녁시간에 경기장에 인개가 자욱하게 내리는 데 그 습기 때문에 그런지 경기장이 미끄러워 플레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박경완 선수에 앞서 23일 경기에서는 김선빈이 수비도중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접질러 재할중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동아대 김성호 대학무대 노히트 노런

대학야구 하계리그 90닝 12K 동아대 2학년 오른손 투수 김성호(20)가 대학야구 무대에서 1년9개월 만에 노히트 노런 계보를 이었다.

김성호는 25일 양천구 목동구장에서 열린 2009 전국대학야구 하계리그전 B조 디지털 서울문화예슬대와 경기에서 90닝 동안 31타자를 맞아 삼진

12개를 쏘아내면서 안타를 1개도 맞지 않았다. 볼넷 3개와 몸맞는 볼 2개를 내준 김성호는 나머지 아웃카운트 15개를 땅볼 6개, 뜬공 8개로 요리했다. 마지막 1개는 1회초 박용신을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한 뒤 3루로 뛰던 2루주자 박성호를 중계 플레이로 잡았다.

키 180cm, 몸무게 73kg인 김성호는 사이드암 투수로 직구 최고 시속 142km를 뿌리고 130km대 초반 싱커를 주무기로 던진다. 전날까지 올해 대회에서

5경기에 등판, 25%이닝을 던져 2승2패, 평균자책점 4.15를 기록했다.

김성호는 폭투도 두 차례 범했지만 후속 타자를 범타로 잡고 단 한명도 3루를 밟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특히 국가대표인 상대팀 4번 타자 김문홍을 두 차례나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동아대는 김성환의 솔로포 등을 앞세워 4-0으로 이겼다.

대학야구에서 노히트 노런이 나오기는 2007년 9월12일 전국대학야구 추계리그전에서 경희대 박현준(SK)이 원광대를 상대로 수필한 이후 21개월 만이다.

대학야구협회는 김성호에게 이번 대회 최종일 특별상을 준다. /연협뉴스



세계 최초 여성 14좌 완등 경쟁 오은선-고미영

아름다운 동행 이뤄질까

히말라야 8천m 봉 11·10개 올라 올 가을 안나푸르나 등정 약속 후원사 이해관계에 실현 미지수

여성산악인으로 히말라야 8천m급 14봉 세계 첫 등정이라는 기록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오은선(43·블랙야크), 고미영(41·코오롱스포츠)씨가 나란히 손을 잡고 마지막 14번째 고봉에 오를 수 있을까.

추격전을 벌이듯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8천m급 봉우리 각각 11개(오은선)와 10개(고미영)에 오른 그동안의 과정을 생각해볼 때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다.

25일 한국여성산악회(회장 배경미)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미 지난해 초 여성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올 가을 안나푸르나봉(8천91m)을 함께 오르기로 약속을 한 상태다. 국내 대표적 두 여성산악인이 경쟁에만 매몰되지 않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취지에서 14좌 완등 도전 도중에 8천m 고봉 하나를 함께 오르기로 했고, 그 대상으로 두 사람 모두 아직 밝히보지 못한 안나푸르나가 선택된 것.

여기에는 국내 여성산악인 최초로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8천848m)에 오른 지현옥씨가 10년 전인 1999년 4월 안나푸르나봉을 오르다 실종된 지 올해가 10주년을 맞는다는 점도 참작됐다.

이런 ‘대의’에 공감해 당시 두 사람은 14좌 완등을 향한 도전 속에서도 올해 9-10월에는 안나푸르나봉을 함께 오르기로 흔쾌히 약속했다는 것이 여성산악회 배경미 회장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산악계는 올 가을 오은선-고미영 두 사람이 함께 안나푸르나봉을 밟으면서 한국 여성산악인의 실력은 물론 화합과 단결을 과시하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씨는 예초 2010년까지 14좌 완등을 목표로, 고씨는 2011년을 완등 목표시한으로 잡았지만 지난해 해와 올해 후원업체의 전폭적 지원 속에 무서운 속도로 등정에 임하다 성공하면서 두 사람 앞에 남은 8천m 고봉은 현재 3개와 4개에 불과한 상태다.

오씨는 이달 말 남가파르밋(8천125m) 등정에 도전한 뒤 내달 초 가셔브름 I (8천80m)에 올 생각을 갖고 있다. 고씨 역시 내달 초 남가파르밋 정상 공격에 나선 뒤 이어서 가셔브름 I, 가셔브름 II (8천34m)를 잇따라 등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 앞에 남은 8천m 고봉은 안나푸르나가 유일하다. 여성산악회의 예초 의도와 달리 안나푸르나 등정이 14좌 완등의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필사적으로 14좌 첫 완등의 기록을 향해 달려온 두 사람이 지난해 초 약속을 그대로 지킬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14좌 첫 완등’은 이미 두 사람만의 문제를 떠나 이들을 후원하는 업체나 언론사의 이해관계와도 얽혀 있는 만큼, 두 사람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현재로서는 후원업체인 블랙야크와 코오롱스포츠측이 여성산악회의 동반 등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독자 행동’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배경미 회장은 “안나푸르나 동반 등정 약속은 꼭 지켜지면 좋겠다”라며 “국내 대표적 두 여성산악인이 함께 손을 잡고 최초로 8천m급 고봉 14개를 모두 오른다면 그 이상의 감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볼굴의 도전정신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오은선, 고미영씨가 기록 달성에만 매달리지 않고 대의를 위한 등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연협뉴스

